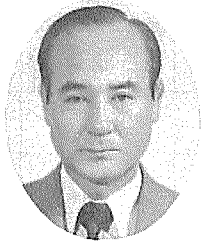


換率과 油價의 關係



裴 潤 壽

〈極東石油·專務〉

최근 國際石油情勢는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 이래 가장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. 이러한 안정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展望된다.

우리 나라의 經濟動向도 정부의 「安定基調下에서의 成長」이라는 施政目標 아래 올해의 換率 상승율도 年末까지 5% 이내로 억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.

이러한 여건하에서 國內의 石油類價格도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될 것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. 더욱기 지난 3월 11일 小幅의이긴 하나 2.8%의 油價引下를 단행한 것은 우리 나라 石油史上 類例없는 일이며, 또 이러한 油價引下는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國民의 인플레이션 心理 억제에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.

그러나 이러한 安定에 대한 기대는 최근의 급격한 換率上昇으로 인해 무너지고, 精油業界에서는 또 다시 油價조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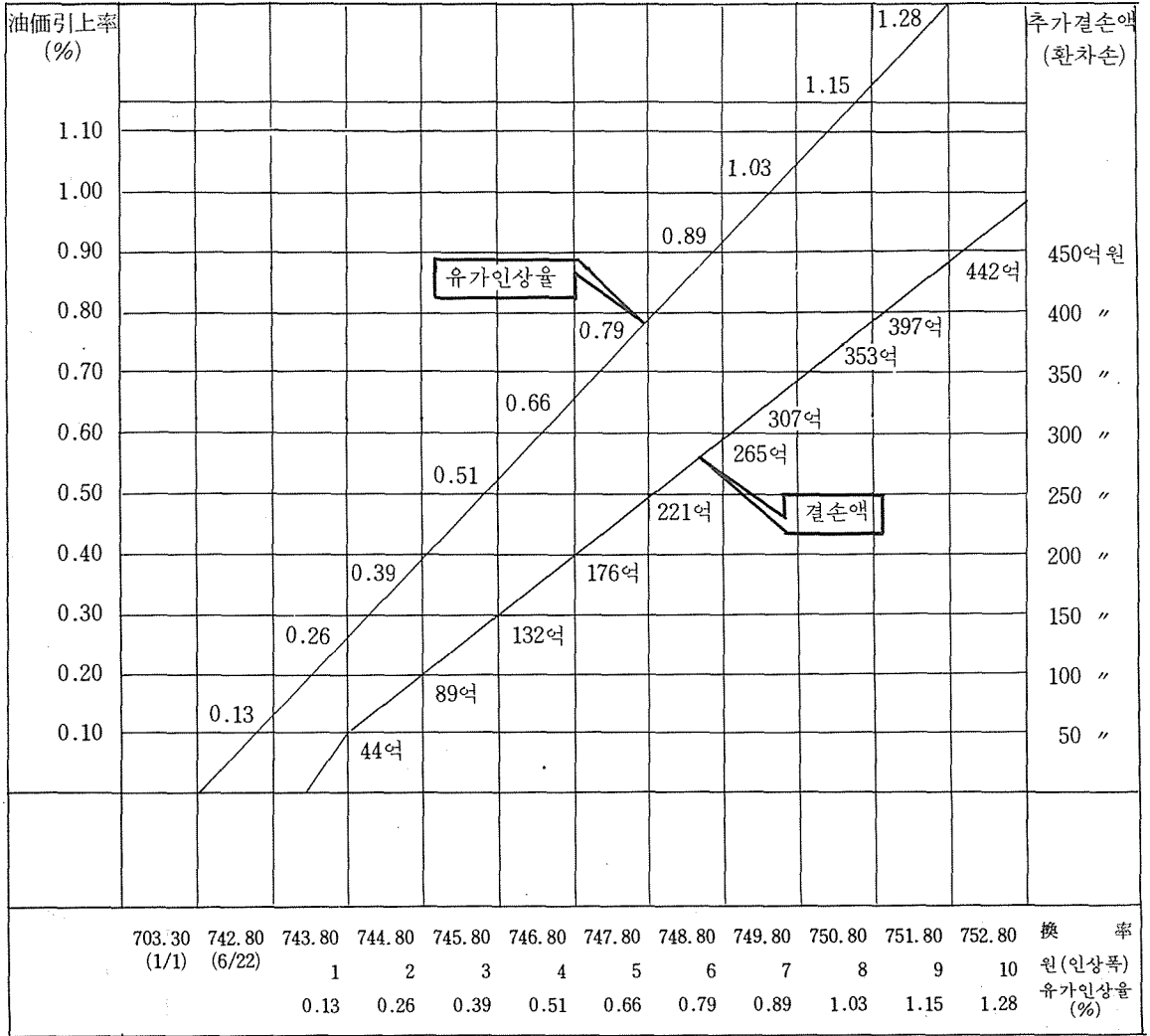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油價引上의 事例를 보면, 引上要因이 발생한 時点에서 適時에 조정되지 못하고, 정부당국의 政策的 차원에서 그 인상시기가 언젠가 늦게 決定됨으로써 그때까지 累積된 結果손액이 油價에 추가적으로 加算되어 결과적으로는 油價引上幅이 더욱 커지고, 따라서 물가전체에 미치는 충격도 그 만큼 컸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.

현재 油價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石油協會 및 斯界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서 油價自律化方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지만, 이 문제는 論外로 하고 우선 油價의 小幅 引上으로 물가에 미치는 충격과를 완화하고, 또 精油社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두가지 目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換率과 油價의 連動制를 채택하는 方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. 다행히도 지금은 原油價格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, 油價의 인상요인은 換率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油價連動制의 실시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適期로 생각된다.

換率引上에 따른 換差損

	1/1	6/22	1원	2원	3원	4원	5원	10원	20원	30원	37.76원
1) 換 率	703.30	742.80	743.80	744.80	745.80	746.80	747.80	752.80	762.80	772.80	779.96
2) 年 初 對 比 引 上 率(%)		5.61	5.76	5.9	6.04	6.19	6.33	7.04	8.46	9.88	10.9
3) 精油社추가부담 換 差 損			44억원	89	132	176	221	442	884	1,326	1,642
累 計		(875억원)	(919)	(964)	(1,007)	(1,051)	(1,096)	(1,317)	(1,759)	(2,201)	(2,517)

換率이 油價에 미치는 영향



換率상승이 油價引上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對策方案을 제시한다.
 첫째는 油價連動制의 실시이다. 原油나 換率 이 오를 때 이를 자동적으로 油價에 반영하고, 금융비, 정제비는 年 1 회 조정 반영하는 것이

바람직하다.
 둘째는 油價충격을 精油社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 셋째는 석유제품 수출물량에 대한 기금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.*

부정 · 부패 · 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